



서길암의 고려불교인물 <4> 정진대사 공양 (靜眞大師 兢讓: 878~956)

현대 한국불교의 진정한 출발점은 어디일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없지 않겠지만, 한국불교를 현실에 놓고 보았을 때, 그 출발점을 봉암사결사로 놓는 데 대부분은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봉암사결사가 이처럼 현대 한국 불교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손꼽아야 할 것은 봉암사결사를 주도한 정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것이 봉암사결사를 이끈 이들이 내건 정신의 핵심이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 한마디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60년 뒤의 한국불교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봉암사결사의 주역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타전을 잡았던 땅, 그곳이 바로 봉암사이며, 선문의 아홉 산 중의 하나인 회양산문(驪陽山門)이다.

애초 회양산 봉암사는 산문의 시조인 지증 도현(智證道憲: 824-882)이 881년에 창건한 사찰이다. 하지만 산이 사방에 병풍같이 둘러친 곳이니, 도현 스님은 봉암사터를 보고 "이 땅을 얻음이 어찌 하늘의 돌보심이 아니겠는가. 승려의 거처가 되지 않는다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도현 스님 당대에는 사방에서 문화가 모여들어 일시 융성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후삼국 쟁패의 지경에 처하면서 전화를 입어 불타는 불운을 당하고 말았다. 국사의 탐비를 세운 것이 924년이고, 전화로 소실되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터전에 다시 찾아든 이가 바로 정진왕사 공양이다. 공양은 도현의 제자인 서혈원(西穴院) 양부선사(楊孚禪師)의 제자이니, 공양은 도현의 법손이 된다.

이 3대에 걸친 사승은 모두가 중국에서 유학해 중국 선종의 법맥을 이어왔는데, 도현은 북종선 신행(神行)의 계통을 이었고, 공양은 남종선 정원 행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도현이 창건하고 주석했던 봉암사 터에 공양이 도착한 것은 935년이었는데, 산 뒤의 절벽은 적도의 방화로 불탄 흔적이 남아있고 불전과 승방 자리는 가시명물로 뒤덮여 있었다. 도현의 탐비와 도현이 조성한 철불만이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을 향한 공양의 진정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원래 이 회양산 봉암사는 사조(師祖)인 도현이 창건하고 주석했던 곳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공양과 크게 인연이 있었던 곳은 아니다. 공양은 원래 공주의 토호 집안 출신으로 공주 남혈원(南穴院)의 여해 선사에게 삭발하고, 20세 되던 해에 가야산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다음, 곧바로 서혈원에 주석하고 있던 양부선사를 친견하고 제자가 됐다. 아마도 사승(師承) 간에 대를 입당유학했던 경험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900년에 중국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선사는 924년에 귀국할 때까지 20여 년간 중국 각지를 유력하며 남종선의 선풍을 배우는 등 배움을 거듭했다. 이때 스님이 주로 영향 받은 이 중의 하나가 바로 석상(石霜)의 법을 이은 곡산도연(谷山道緣) 선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운개회상(雲蓋會上)과 동산도량(洞山道場) 등을 두루 참방했다고 한다.

이처럼 공양 스님은 출가 직후부터 유학시절에 이르기

# 불법에 정진하되 명리에 매달리지 않는다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 보물 제171호. 봉암사에 자리잡고 있는 고려 전기의 사리탑으로, 정진 대사의 사리를 모셔놓고 있다.

## 신라왕실과 지방호족의 도움 속 정진

## 고려왕실과 소원했으나 봉암사 기틀 다져

## 산중에 앉아서도 불교를 돕고 순화하고

## 철저한 지계 통해 출가자 본분 지켜

까지 거의 선종의 회상에서 공부하고 있다. 귀국 후에는 스승인 양부 선사가 서혈원에서 옮겨 주석했던 강주(康州, 진주) 백암사에 일시 머물렀는데, 이 무렵 신라 경애왕으로부터 '봉종 대사(奉宗大師)'라는 별호를 받았다. 이 강주에 머물 때 공양은 신라 왕실의 지원은 물론, 강주 지역을 유력한 호족이었던 왕봉규 등의 지원을 동시에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즈음이면 강주 지역은 고려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당시 유력한 대부분의 선승들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하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정치세력으로부터 대단히 자유롭게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혼란기에 누가 찾아와서 지원하는 개이지 않고 지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세간의 명리가 아니라 승려의 입장에 철저히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며, 당시 입당유학 후 귀국했던 선승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행보가 자유로운 부분이 많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안정되는 935년, 공양은 백암사 세력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화로 인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봉

암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 봉암사에 정착한 초기를 비문은 "비록 산중에 고요히 앉아 있어도 위맹을 지역에 두루 떨쳤다. 조용히 마군을 함복하는 술(術)을 보이며 불교를 돕고 순화하는 공을 드날렸다. 개미떼처럼 모인 흉악한 도적과 뱀처럼 아합하는 역당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성품을 고치게 했으며, 난폭한 마음을 순화시키니 영도를 닦는 것이 점차 없어서 모두 평안하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일시에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봉암사의 기틀을 다시 잡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이 당시 이 지역에 영향이 컸던 고려왕실과 인연이 깊은 충주 유씨 세력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936년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는 유력한 고승대덕들을 불러들였지만 공양은 거기에서 빠져 있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고려와 후백제가 다투던 강주에서 신라왕으로부터 별호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니 고려 태조로서는 공양이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공양은 고려 조정의 조서를 기다리지 않고 개경으로 올라갔다. 궁으로 들어온 대사를 친견한 태조는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見而異之)"도 불구하고, 공경을 표하면서 숭불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태조는 대장경을 사경해 개경과 서경에 나누어 봉안하는 문제를 논의했고, 대사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 가까이 두려고 했다. 그러나 대사는 다시 그 청을 물리치고 봉암사로 돌아와 두문불출했다.

이후 해종이 즉위했을 때 다시 대사를 초청했으나 산문을 나서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정종이 즉위했을 때는, 태조 때와 마찬가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발걸음을 개경으로 옮기고 있다. 광종 2년에는 왕의 초청을 받아들여 왕사의 지위를 받아들여 약 30개월 동안 개경의 사나선원(舍那禪院)에 머물렀다. 이 고려의 네 왕과 관련된 공양의 특이한 행보를 이인재 교수는 대장경 연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한다. 태조와 논의한 문제가 대장경의 양도분치(兩都分置) 문제였고, 정종 때는 <의외론 화엄경> 8권을 전해받았으며, 사나사는 대장경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찰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흔히 고려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의 호국불교와 우리가 생각하는 호국불교는 차이가 있다. 고려의 호국불교는 왕과 조정이 불법을 수호하고, 그 수호의 공덕력으로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호국불교는 불교가 왕권에 종속된 불교, 곧 불교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두 관점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고려의 호국불교는 고려 초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공양과 같은 승려의 모습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다. 세간의 명리가 아니라 불법에 정진하는 승려의 모습, 공양은 그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았다. 그랬기에 법을 구하려 간에 있어서는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거침없는 행보를 내보였고, 세간의 명리를 구함에 있어서는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이다. 계율을 지켜 어그러짐이 없었기에 몸이 아위어서 세수하거나 목욕할 때 목욕통 속에 양면이 뜬 물에 뜬 바가지와 같았다는 기록은, 과장일지라도 공양이 계율에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를 보여준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센터 교수

##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1



## 정토종의 개조 호넨 상인 (法然上人 訶)

호넨 상인의 정토이론은 어땠을까. 호넨은 염불을 통해 극락에 머무는 삼매의 경지를 체득했다. 그리고 이를 먼저 체득한 선도가 <관무량수경소>에서 실험한 알고 선도야말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안내하는 선지식으로 확신하게 됐다. 호넨은 이처럼 정토교에 심취한 뒤부터 염불을 통해 얻는 삼매가 왕생의 정정업(正定業)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정업이라는 것은 선도의 <관무량수경소>에서 왕생의 정인(正因)이라고 본 행업을 말한다.

선도는 왕생을 위한 행을 정행(正行)과 잡행(雜行)으로 나누고 다시 정행 5종을 2업(業)으로 나누어 그 가운데 칭명염불의 행은 아미타불의 서원에 의지하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라고 하고 나머지 경전의 독송, 아미타불을 상상해 떠올리는 수행인 관상, 아미타불에 대한 예배와 찬탄공양을 조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마침내 당시 정계 실력자 중 한 사람인 쿠조 카네자네의 요청으로 그의 필생의 사상이 담긴 <선택본원염불집(選擇本願念集)>을 쓰게 됐다. 여기에서 그는 선도는 아미타여래의 화신이며 그가 쓴 <관무량수경소>는 아미타여래가 직접 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선택본원염불집>은 당시의 시대가 말벌의 시기임을 설하고 있



정토종의 총본산 지은원(知恩院), 교토시(京都市)

1204년에는 천태와 진언의 교설을 파악하여 제불보살을 비난하지 않겠다는 등의 지숙을 맹세하는 <7개조 제계(七箇條制戒)>를 정하고 제자들의 연명을 받아 천태종의 총본산인 연력사(延曆寺)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에 화엄종의 승려 묘에(明惠)는 <회사륜(邪論)>을 통해 전수염불의 과실 9조목을 들어 조정에 이를 정지시킬 것과 호넨을 비롯하여 제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타교단의 승려가 호넨의 제자가 되거나 조정의 관리와 무인들의 귀가 늘어가자 1206년에는 기성 교단의 승려들이 이 신흥종단의 염불 전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재차 고하였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호넨의 입장을

비호하였지만 결국 전수염불의 정지를 명령하지 않으면 안됐다. 이로 인해 1207년

## 선도야말로 서방정토로 안내

## 염불 삼매가 왕생의 지름길

염불정지와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제자들은 사형을 당하고 호넨은 멀리 유배됐다. 그는 다음 해에 사면되어 교토로 돌아와 정진하던 중 1212년 80세의 일기로 입적했다.

호넨의 일생의 행적은 당시 거대 교단 세력의 안락함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의 전환기에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법의 사명을 자각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범부중생들의 낮은 입장에 서서 구제의 방도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전심전력의 삶을 일관하였던 것이다. 호넨으로부터 시작된 카마쿠라 신불교의 선택의 정신은 비로소 민중에 대한 일본불교의 토착화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하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수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회의 집대성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10,000원 A5/287쪽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